

황인홍 무주군수, 국비 확보 총력

기재부·문체부 등 찾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용역 사업비 등 요청

무주군이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군민이 행복할 무주 건설'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인홍 군수(사진)가 직접 담당 공무원들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를 비롯한 국회 등을 찾아 사업추진 타당성과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

지난 21일에도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획재정부 한홍 차관보를 비롯한 예산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취지와 추진상황, 사업개요 등을 설명하고 용역 추진비 등 관련 예산을 요청했다.

황인홍 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태권도를 통한 인류 문화영토 확장 및 세계평화, 인류번영에 기여, 세계 태권도 성지 완성, 올림픽 영구 종목화, 국제 태권도 전문 지도자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핵심으로 한 'Again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을 문체부에 공식 제출했고 태권도인들을 중심으로 설립 추진의 지가 모아지고 있는 만큼 세부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총 사업비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무주군의 2022년 주요 국가예산 발굴·추진 중인 사업은 50여건 2천여억 원 규모로 ▲태권도 그랑프리대회 추진을 비롯해 ▲폐기물종합처리장 무주·진안 광역소각시설 설치공사,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비롯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조사업,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8건은 공모로 준비·진행 중이며 순수 국비 300억 원이 소요되는 ▲농촌협약 체결 건과 총 사업비 6억4천여만 원 중 국비 규모가 4억5천만 원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공모 확정이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정부 재난지원 한시 생계 지원금 지급

피해지원 받지 못한 저소득층 대상 가구별 50만원

무주군은 오는 25일부터 정부가 마련한 제1차 재난지원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시 생계 지원금은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기존 복지 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별 현금 5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

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4일까지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23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신청결과 당초 985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78%에 해당하는 767가구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군은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오는 25일 1차적으로 421가구에 2억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2차 지원금은 오는 28일에 지급되며 농림업인 배우처 지원가구 346가구에 6,9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농림업인 배우처 지원가구는 배우처 지원액(30만 원)의 차액인 20만 원을 지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읍, '쓰레기더미' 집 대청소

진안읍 진안읍(읍장 육원문)은 23일 저장장박 의심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가정 방치쓰레기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가구는 저장장박증으로 인해 주택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가구로 해충, 악취 등으로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상태였다. 그동안 진안읍은 집을 타인에게 보여 주기 싫어하는 대상 가구에 정리의 필요성을 거듭 설득했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방문과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에 집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았던 대상 가구는 마침내 정리에 동의했고 진안읍은 집 앞마당과 집 안에 쌓인 쓰레기를 말끔히 정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장학숙, 입사생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 제공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진안장학숙(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은 지난 22일 저녁 입사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전문 셰프 초청 특별식'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기말고사 등을 앞두고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생활로 심신이 지친 학생들에게 활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준비했다. 행사에는 요리 전문 셰프를 초빙해 BBQ 플래터, 주먹밥 등 학생들이 좋아하지만 단체 메뉴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메뉴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의 협찬으로 학생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는 진안홍삼이 함유된 빼망젤리도 함께 제공

해 즐거움을 안겨줬다. 식사시 식사 직전까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입사생 이도 군은 "코로나19로 위식이 어려웠는데 장학숙에서 좋아하는 음식들이 잔뜩 나와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장학숙은 전주 소재 고등학교 및 전라북도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사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건강 식단 제공 및 환경 개선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장학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23일 정천면 동구나무아래센터 한마을광장에서 '정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정천면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진안군, 정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식 가져

진안군은 23일 정천면 동구나무아래센터 한마을광장에서 '정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정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식에는 정춘성 군수, 김광수 군의장, 김동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박주홍 추진위원장, 최봉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은 식전행사인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박주홍 추진위원장의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사업추진 공로자들을 위한 전춘성 진안군수의 감사패 전달, 동구나무아래센터 현판식 등으로 이뤄졌다. 정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역의 중심공간인 면 소재지 기능을 지역특성에 맞게 생활편의, 안전한 보행환경, 문화·복지 등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진안군 정천면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6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총 사업비 47억원(국비 28억원, 지방비 19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했으며 지난

2020년 시설물을 준공하고 정천면의 기초생활인프라 및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이를 통해 면소재지에 문화·복지·교통서비스 공급기능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으로 동구나무아래센터 및 야외광장,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역경관개선을 면소재지 도로변 친수공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로 홍보마케팅, 공동체활성화, 주민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정춘성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정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면소재지의 문화·복지·교통서비스 기능 향상으로 정천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향후 정천면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박주홍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정천면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장수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답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23일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정영수 군수는 이날 한중화 전통군경유족회 장수군지회장, 최춘금 전통군경미망인회 장수군지회장 등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직접 부착하고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장수군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전통·순직군경 유족 및 미망인 등 총 102명의 국가유공자 가

정에 순차적으로 명패를 부착 할 예정이며,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복지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정영수 군수는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이라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

진안군은 23일 여름 하천 등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관계 공무원, 안전관리요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실 119안전체험관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물놀이 안전관리 근무수칙, 구명환 등 구명장비 사용방법 등 체험 위주의 실전 훈련을 실시해 비상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요원은 물놀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 16개소에 배치, 8월 1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군은 피서객들이 물리는 주말에 담당 공무원 휴일 비상근무제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15일~8월 15일까지 약 1개월을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노인체육회 발족

무주군노인체육회(회장 윤치병)가 23일 발족했다.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황의탁 도의원, 김문철 전북노인체육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 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83% 정도를 차지한다"며 "우리 군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그로 인해 지역이 활기로 가득차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노인체육회는 질병 없는 노년을 목표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종목을 개발·보급하는 물론, 스포츠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운동과 여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창립된 것으로 노인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일을 하게 된다. 무주군노인체육회 임원진은 윤치병 회장을 축으로 정영진, 진용훈 부회장, 김대성 사무국장을 비롯한 14명의 이사진으로 구성이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